

『성경전서』(1911년)에 반영된 번역의 특징들

-레위기를 중심으로-

왕대일*

1. 문제 제기

우리가 흔히 『구역』이라고 부르는 1911년 판 『성경전서』(이하 『구역』)는 그 이전에 소개되었던 낱권 번역들과는 달리 우리말로 간행된 첫 신, 구약 성경 전서이다. 이 『구역』에 대한 평가는 서지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검토되기도 하며, 어휘나 문체 등 우리 말 어법을 중심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 또 『구역』에 반영된 번역 원칙이나 문화적 배경을 추적하기도 하고,²⁾ 본문 비평적인 시각에서 『구역』의 본문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나아가 『구역』을 가능케 했던 히브리어나 그리스 대본에 대한 본문 전승 연구도 요청된다. 다만, 구약의 경우, 민영진이 지적했듯이,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비평적 편집이 1937년에 가서야 대두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911년에 완간된 『구역』에 대한 본문 비평적 평가는 정당한 비평적 기준이 될 수 없다.³⁾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1 (2010), 5-37, 특히 7-14;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1 (2010), 75-125; 김혜숙, 『구역 성서연구: 번역사 및 국어학적인 고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 2)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1 (2010), 39-74;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4:1 (2010), 127-157.

첫 한글 『성경전서』(1911년)인 『구역』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번역 원칙과 그 장단점 등을 살펴보는 노력으로 집중된다. 『구역』과 한글의 만남에 대한 일련의 평가는 『구역』이 지금까지 발간된 우리말 성경 가운데 가장 우리말다운 문체로 번역되었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⁴⁾ 『구역』이 원문의 구조보다 우리말 문체를 살리는 번역 원칙을 존중한 것에 비해 『구역』을 개정한 『개역』(1938/1956/1961년)이나 『개역개정』(1998년)은 원문의 문장 구조를 우리말보다 더 살리는 번역 원칙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역』은 무리한 축자역보다는 우리말 표현을 살리는 번역에 더 다가서지만, 그 뒤를 이은 『개일역』(1925년)이나 『개역』, 『개역개정』은 우리말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의 형식을 우리말로 재구성하려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역』의 우리말이 읽거나 듣기에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김창락은 구역의 우리말 문체를 “낭독체”, “유려체”(流麗體), “판소리체”로 부르기도 한다.⁵⁾ 하지만 『구역』에 대한 이런 평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과연 『구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말 성서 번역사에서 가장 우리말다운 문체를 보존하고 있는 성경인가? 그렇다면 얼마만큼 『구역』은 축자역을 피하고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개역』의 축자역에 강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전제할 때, 그 『개역』의 뿌리가 되는 『구역』에는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나 형식 등이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이 점을 확인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구역』이 얼마만큼 우리글인지, 어떻

3)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29-30.
 4) 특히 김창락이 이 점을 강조한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구역』을 검토한 후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구역』이 순수한 우리말 고유의 유려(流麗)한 문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구역』에 참여한 우리 한국인 선배들이 다행스럽게도 그리스어 원문을 몰랐고 영어 문법에도 몰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44.
 5)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50-51.

게, 어느 정도로 히브리어 원문의 형식과 구조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구약 성서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레위기를 관찰 대상으로 삼은 것은 레위기가 법전 형태의 글이기 때문이다. 수려한 이야기체의 글이 아닌 딱딱한 규정과 가르침에 반영된 『구역』의 구약 본문으로 『구역』이 드러내는 번역상의 특징을 추적하려고 한다.

2. 『구역』에 반영된 번역 원칙

2.1. 무엇보다 당시의 입말(言)을 번역의 글말(文)로 선택하였다

『구역』 레위기를 살필 때 우선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그 문체가 “~이 나라”, “~지어다”, “~하더라”, “골으샤되”, “닐으기를” 이런 식이라는 점이다. 레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역』에 실린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 현대 한국인들은 이 문체를 이른바 고어체(古語體)라고 부른다. 고어체 문장이 『구역』의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 형식인 것이다. 이런 식의 문체는 『개역』과 『개역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강단용 성경의 문체로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런 식의 옛 말을 가리켜 경전 언어에 적합한 스타일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체는 결코 경전 언어가 아니다. 『구역』의 문체는 『구역』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던 1900-1910년(신약의 경우 1900-1906년, 구약의 경우 1906-1910년) 당시 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였다.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말로 거룩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 『구역』의 한글이 경전용이어서 번역 언어의 문체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세 종류의 말, 글이 소통되고 있었다. 하나는 양반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한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녀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한글(언문)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중간 계층이 사용하던 국, 한문 혼용체였다. 그 가운데

『구역』은 한글을 기독교 경전의 글로 선택하였다.⁶⁾ 『구역』을 번역했던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을 한반도의 민중이나 이 땅의 소외 계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구역』의 문체는 그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던 입말(言)을 글말(文)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만큼 평이했고, 그만큼 구어체(口語體)였으며, 그만큼 읽기에 수월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는 『로스(Ross) 역』으로 올라간다. 1882년에 낱권 성경 형태로 첫 선을 보이기 시작한 『로스역』 성경은 1887년에 가서는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서 전체를 우리말로 선보였다. 이 『로스역』 성경은 서북 사투리로 번역된 말씀이었다. 사투리라고 하지만, 그 말은 그때 『로스역』 번역에 동참했던 서북 상인들(이를 테면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서상륜 등)이 일상생활 중에 주고받던 입말이었다.⁷⁾ 다시 말해 『로스역』은 조선 말기 민중들이 사용하던 평이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

이것은 『이수정역 마가복음』(1884년)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 『이수정역』 신약 성경은 완전한 한글 번역이라기보다는 한자를 많이 쓰면서 거기에 한글로 토를 단 『현토한한신약 성서(懸土漢韓新約聖書)』이었다. 비록 『이수정역』이 『로스역』에 비해서 서북 사투리나 지방 색채가 없는 표준말(?)을 고집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수정역』은 어디까지나 한자를 아는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시도된 번역이었다.⁸⁾ 그러니까

6)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107-108. 이덕주는 그 구체적인 예로 1893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장로회 선교 공의회 결과를 인용한다.

그 공의회는 복음을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번역해야겠다는 결정과 함께 “모든(기독교)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 인쇄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 4백 년 넘게 긴 잠을 자던 글이 마침내 깨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C. C. Vin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Sep. 1893), 671;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108에서 증인.

7) 이를 테면 『로스역』 마가복음 1:24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우리 너로 너부로 어드러기 네 와서 우리를 망하나뇨.”

『로스역』이나 『이수정역』 모두 자기 독자를 대상으로, 자기들이 쓰던 일상 언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시대의 말로 전달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언어로 소통된다는 점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가! 첫 한글 성경 전서인 『구역』은 1900-1910년 당시 사람들이 쓰던 입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간 작품이 된다. 입말이 글말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고풍스럽게 해야 존경받는 글이 된다는 생각은 당시 번역자들에게는 추호도 없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읽히던 신문이나 논설, 편지문 등의 문체를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주간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창간호(1897. 2. 2.)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⁹⁾

8) 이를 테면 『이수정역』 마가복음 1:1은 이렇게 시작한다. “神의 子 耶負基督의 신 자 예수크리슈토스

福音이니 그 처음이라.”

9) 「조선크리스도인회보」는 독립신문에 이어 순 한글로 제작된 교회 신문이다. 건양(建陽) 2년(1897년) 2월 2일 감리교회의 초대 선교사 H. G. 아펜젤러 목사가 창간했다. 영어 표기는 미국 감리교의 기관지 이름을 본 따서 *Korean Christian Advocate*라고 하였다. 발행소는 경성 정동, 감리교 선교부였다. 신문 체제는 국배판 4면으로 한글 4호 2-3단 종서(從書)로 인쇄되어 있다. 신문 값은 처음 한 달은 무료였고, 그 다음부터는 엽전 네 푼이었다. 신문의 내용은 사실→성경연구→소식란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자 1897년 12월 8일부터 신문의 이름도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바뀌 1905년 6월 24일까지 속간하였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가 발간되고 난 두 달 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신문인 「그리스도신문」을 발간했다. 이 두 신문은 1905년 7월 1일부터 1907년 12월 3일까지 감리교와 장로교의 신문이 통합하여 「그리스도신문」으로 발행되었다가, 1915년 12월 8일부터 1937년까지 감리교와 장로교의 합동으로 「기독신보」라는 이름으로 속간되었다. 이 신문에서 우리는 1900년 초 우리나라의 사회상과 정치 문화에 관한 좋은 역사적 사료를 얻을 수 있다. 송길섭, “〈그리스도인회보〉해제,” 「조선그리스도회보」 1 (1897. 2. 2.-1898. 12. 28.)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6), v-vi.

...슬프다 우리동포 형제들이 동양스적만 도타하지말고 선도의 하시던 일만 올타하지마오 동양스기를 불지라도 하나라는 충성을 숭상하고 은나라는 공경을 숭상하고 유나라는 문치를 숭상하였스니 츠츠 변하는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지금 만국이 교제하는 재를 당하여 동양 사름은 동양 글만 넓고 동양도만 존승하고 동양 소문만 듯고져 하지 말고 우리 회보를 보시면 세계상에 유익한 소문과 각국에 즈미 잇는 스적을 즈연히 통달할 것이니, 우리가 이 회보를 내는것시 죄리를 취함이 아니오, 사름의 혼암흔 마음을 광명케 함이니 누구던지 기명에 진보코즈 하거든 이 회보를 츠레로 사서 보시기를 바라오.¹⁰⁾

이 기사에 반영된 한글의 어투/문체에 주목하라. 이런 식의 글쓰기는 그 시대 태동한 「신학월보」의 “론설”에서도 등장한다.¹¹⁾

양월 일에 경성 정동 대일회장에서 미년회를 기회홀터인디 하리쓰감 독께서 회장이 되시고 여러 장로스와 선교스들과 목사들과 입회흔 전도스들과 입회하기로 천겨된 전도스들이 일제히 모힐지니라.¹²⁾

“~지니라”라는 말로 글을 끝맺고 있다. 이 「신학월보」의 말미에는 선교사가 이 땅의 초기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

10) 「조선그리스도회보」 1 (1897. 2. 2.-1898. 12. 28.), 1.

11) 「신학월보」는 1900년 12월에 창간하여 1904년 12월에 정간했다가, 1907년에 속간하여 1910년 가을까지 발행한 선교 초기에 속한 한글 월간지이다. 이 잡지는 초기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인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어 발간했던 월간지로 감리교회의 교리, 제도, 성경 공부 등을 비롯하여 선교사들과 한인 지도자들의 선교 활동 보고, 엽шит 청년회 보호여회(여성교회) 활동 상황, 구역회, 계삭회, 지방회 연회 기사 등을 실고 있다. 이 신학월보는 구한말의 말기 민족의 격동기의 한국 교회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에 교회사적으로 아주 소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덕주, “〈신학월보〉의 발행 역사와 사료적 가치,” 「신학월보」 영인본 5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6-15.

12) 「신학월보」 영인본 5, 3.

평안함을 너의들의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함을 너의들의게주는거슨 이 세상이 주는것 못치 내가 너의게주는거시아니라 너의들은 심중에 근심도말고 두려워히지도마라 예수일함으로 누의된 풀노라 쎄 하리쓰.¹³⁾

“평안함을 너의들의게 끼치노니!” 편지문의 문체가 오늘 우리 귀에 익숙한 성경 말씀이다. 그 시대의 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이니라”, “~지어디”, “~하노니” 식의 문체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잡지에도, 논설에도, 편지에도, 성경 본문에도 같은 어투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상 언어가 기독교 경전의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구역』은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살던 조선 반도의 민중들이 읽고 듣고 주고 받던 언어로 표현된 번역이었다는 것이다.

번역을 평가할 때 으뜸가는 기준은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번역했는가 아니다. 그 번역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를 우선 먼저 따져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번역인가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른 번역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번역 원칙이나 이론 수립은 번역된 글을 읽는 대상을 확인하고 나서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역』은 1910년대 당시 이 땅의 민중들에게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 되려고 했던 말씀이었다. 그랬기에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투로 기독교 경전을 번역해 갔다. 즉, 『구역』은 당시 민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번역이었다.

2.2. 우선, 원문의 형식이나 구조를 번역에 반영하려고 했다

『구역』은 우리말로 된 책이지만, 단순한 책이 아니고 성경이다. 그 시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역』은 어디까지나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공인 성경이었다. 원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옮겨놓은 작업이었다. 이 작업에서 제

13) 「신학월보」 영인본 5, 5-6.

일 먼저 돋보이는 것은 『구역』이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나 형식 등을 우리말에서, 우리말로, 우리말처럼, 살려보려고 애를 썼다는 점이다.

1900년대 초 이 땅의 번역자들은 원문의 문자적 번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성서 번역사가 그 초창기에는 대체로 원문의 세계를 수용 언어로 전달하는 일에 치중했다는 지적과 그 행보를 같이 한다. 예컨대 제대로 된 번역이란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번역이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런 번역의 자취를 『구역』의 레위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레위는 크게 제사 법전(1-7장), 정결 법전(11-15장), 성결 법전(17-26장)으로 구성된다. 이 법전에 담긴 규정은 형식상 크게 이른바 조건법(casuistic law, 또는 case law)과 필연법(apodictic law)으로 구별된다. 이때 조건법이라고 불리는 규정은 히브리어 접속사 ‘키’(כִּי)나 ‘임’(אִם), ‘베임’(בְּאִם)으로 시작된다. 이 접속사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일정한 체계 속에 사용된다. 총론이나 일반적인 정황을 거론할 때에는 ‘키’로 말문을 열지만, 그 속에 거론되는 여러 각론이나 특정 정황을 다룰 때는 ‘임’으로 시작한다. 문제는 이런 형식을 우리말로는 제대로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레위기 1:2, 3의 경우 RSV는 그것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When any man of you brings an offering to the Lord, you shall bring your offering of cattle from the herd or from the flock(레 1:2).

If his offering is a burnt offering from the herd, he shall offer a male without blemish...If his gift for a burnt offering is from the flock, from the sheep or goats, he shall offer a male without blemish...If his offering to the Lord is a burnt offering of birds, then he shall bring his offering of turtledoves or of young pigeons(레 1:3, 10, 14).

RSV를 비롯한 영어 성경들은 대체로 히브리어 접속사 ‘키’를

“When”으로(참조, 레 2:1, 4; 5:1, 3, 4, 5, 15; 6:1, 4), 히브리어 접속사 “임”은 주로 “If”로 번역한다(참조, 레 1:3, 10, 14; 2:5, 7; 3:1, 6, 12; 4:3, 13, 27, 32; 5:5, 11, 17). 하지만 우리말 『구역』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옮긴다.

너희 중에 만일 누구든지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짐승 중에 곳 소 무리나 양무리에서 제물을 삼아 드리라(레 1:2, 구역).

만일 소무리에서 제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거든 흙 엮는 수컷으로 드리되...만일 양 무리 중에서 양이나 염소로 번제의 제물도 드리거든 흙 엮는 수컷으로 드릴지나...만일 새 중에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거든 꿩 비둘기나 집 비둘기 삭기로 드릴지니(레 1:3, 10, 14, 구역).

『구역』에서 조건법의 ‘키’(When)와 ‘임’(If)은 모두 똑같이 “만일”로 표현된다. 외형상 이 둘 사이에는 아무 구별이 없다. 레위기 1:2, 3-10의 경우 ‘키’ 문장은 “만일 누구든지...”로, ‘임’ 문장은 “만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 “만일 누구든지”는 원문의 ‘아담 키 야크리브...’(אדם כי יקרבו...)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히브리어 ‘키’ 앞에 도치(倒置) 형태로 제시된 주어 ‘아담’이 있기에 “만일 누구든지”라는 번역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구역』이 조건법의 도입부(전제절, 前提節)를 만나면 반드시 “만일”이라는 말로 운을 댄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법전의 형식인 ‘조건(protasis) + 결과(apodosis)’ 구문을 ‘만일 ~하거든 ~할지니’라는 식으로 지키고 있다. 이것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큰 단락(‘키’ 문장)과 작은 단락(‘임’ 문장)을 구분하는 『새번역』(2001년)과는 차이가 난다.

원문 형식에 대한 세심한 파악은 필연법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이 경우 원문에 없는 우리말 단어를 첨가하기도 한다. 레위기

19:2가 그런 경우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맛당히 거룩할지어다(구역).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개역).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새번역).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RSV).

...B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TEV).

레위기 19:2는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나 야웨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케도쉬 티흐유 키 카도쉬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켄, כְּדוֹשִׁים תִּהְיוּ כִּי קְדוֹשׁ אֲנִי יְהוָה אֱלֹהֵיכֶם)는 말이다. “케도쉬 티흐유”는 필연법적인 규정이다.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은 그것을 명령형으로 옮겨놓고 있다. 그런데 『구역』은 거기에 “맛당히”라는 말을 첨부했다. 본문 형식이 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너희는 맛당히 나의 룰레를 직혀 흥하라”(20:8), “서로 속이지말고 맛당히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25:17)에서도 드러난다. “맛당히”라는 한마디를 우리말 어법에 따라 본문에 첨가해 놓아 히브리어 원문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원문에는 있으나 『구역』에는 반영되지 않는 본문도 눈에 띈다.¹⁴⁾ 그렇지만 대체로 『구역』의 레위기는 히브리어 원문의 세계를 우리말 어법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에 충실하다.

14) 가령 구역의 레위기 21:4는 문장 주어인 “제사장”을 생략했다. “빅성 중에 어룬 된자가 스스로 더럽혀 욱되게 하지말지니”(구역).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개역개정)”,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욱되게 해서는 안 된다”(새번역).

즉, 『구역』은 그것을 계승한 『개역』과 함께 이 땅에 형식 일치의 번역, 또는 축자역을 뿌리 내리게 하는 터전이 되었다.

『구역』의 레위기가 히브리어 구문의 형식을 우리말로 옮기는 데 얼마나 세심했는지 레위기 1:1에서도 드러난다. 회막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다(출 40:34-38). 그런 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된다.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레 1:1, 구역)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레 1:1, 개역)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레 1:1, 새번역)

『새번역』 레위기 1:1은 원문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 레위기 1:1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시내 산에서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오경의 구조에서 볼 때 레위기 1:1은 시내 산 단락(출 19:1-민 10:10)을 둘로 구분하는 분수령이다. 레위기 1:1 이전의 본문은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룬다. 레위기 1:1 이후부터 본문은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야웨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시내 산 단락의 전반부(출 19:1-40:38)와 후반부(레 1:1-민 10:10)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구역』과 『개역』은 이 점에서 『새번역』과 다르다. 그런데 원문의 의도를 살리는 방식에서 『구역』은 『개역』과 차이를 보인다. 『구역』은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이지만, 『개역』

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이다. 『구역』과 『개역』 사이에는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다)”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다)”의 차이가 있다. 『구역』은 레위기 1:1의 ‘메오헬 모에드’(מִוֶּעֶל מֹאֵד)의 전치사 ‘민’(מִן)을 『개역』처럼 단순히 “~로부터”라고 읽지 않았다. 그것을 굳이 “~가운데서”라고 읽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캐기 위해서는 레위기 1:1과 병행하는 민수기 1:1을 비교해야 한다.

이스라엘 족손들이 애굽에 싸에서 나온 후 제 이년 이월 초일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 중에서 모세의게 닐너 골⁹샤딕(민 1:1, 구역)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 이년 이월 일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민 1:1, 개역)

『구역』 민수기 1:1에서 하나님은 “회막 중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것은 원문의 ‘베오헬 모에드’(מִוֶּעֶל מֹאֵד)에 대한 번역이다. 『개역』은 이것을 그냥 “회막에서”라고 번역하였다. 레위기 1:1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역』은 애써 ‘메오헬 모에드’(레 1:1)와 ‘베오헬 모에드’(민 1:1)를 구별을 하고 있다. 전자를 “회막 가운데서 (부르셨다)”로, 후자를 “회막 중에서 (이르셨다)”로 표현하였다.¹⁵⁾ 전치사 ‘민’과 ‘베’의 차이를 이처럼 세심하게 전달하였다. 그만큼 『구역』에는 원문의 형식을 존중하려는 열의가 담겨 있다.

2.3. 그렇지만 원문 형식보다는 원문의 뜻을 우리말에서 살리고 있다

15) 구역처럼 레위기 1:1을 읽으면 히브리어 전치사 ‘민’은 “부분을 뜻하는 전치사 ‘민’”(partitive min)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읽고 있는 『구역』의 레위기 1:1은 히브리어 전치사 ‘민’을 “전체 중에서 일부를 나타내는 용법의 ‘민’”으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

『구역』의 레위기를 읽으면서 새삼 놀라는 것은 『구역』의 우리말이 원문의 형식보다는 원문의 뜻을 우리말로 되살리려고 더 애쓴다는 사실이다. 외국어를 번역한 책이 아니라 우리말, 우리글이 되도록 다듬었다. 그 단적인 경우가 히브리어 문장이 매번 접속사 ‘베’(ו, 그리고)로 시작하지만, 우리말 『구역』은 일일이 히브리어 접속사 “그리고”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줄곧 말을 이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문의 형식을 과감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는 레위기 4:2에서도 발견된다. 레위기 4:2는 속죄제 규정의 총론으로 원문에서 ‘네페쉬 키’(כִּי נַפְשׁוֹ)로 시작한다. 여기에 딸린 각론, 즉 ‘임’(אִם)으로 시작하는 단락들은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할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개로 구분된다(3-12, 13-21, 22-26, 27-35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역』의 레위기 4:2가 이 구절을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구역』과 비교해 보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레 4:2, 개역).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날으기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명하여 하지말나 흐신 일 중에 아지못하고 흐나이라도 흥하여 죄를 범한자는 이 아래와 곳치 할지라(레 4:2, 구역).

『개역』이 그냥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짤막하게 옮긴 문장을 『구역』은 “여호와께서 명하여 하지말나 흐신 일 중에 아지못하고 흐나이라도 흥하여 죄를 범한자는”이라고 길게 옮기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네페쉬 키-테헤타 비쉬가가 믹쿨 미즈봇 아도나이 아세르 로 테아세나 베아사 메아하트 메헨나’(נַפְשׁוֹ כִּי תַחַתָּא בְּשִׁנְגָּה מִכֹּל מִצְוֹת יְהוָה אֲשֶׁר לֹא תַעֲשִׂינָהּ וְעָשָׂה מֵאֲחַת)

הַיְיָ)이다. 이 구절을 RSV는 다음과 같이 옮긴다.

(Say to the people of Israel), If any one sins unwittingly in any of the things which the Lord has commanded not to be done, and does any one of them.

RSV는 레위기 4:2를 고스란히 문자적으로 옮기고 있다. 『구역』은 이런 RSV와는 달리 원문을 고스란히 우리말로 다 옮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문의 형식을 다 되살리지 않으면서도,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하고 있다. 문장 길이가 『개역』에 비해서는 길지만, RSV에 비해서는 원문의 형식보다는 원문의 뜻에 충실하다.

『구역』의 우리말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레위기 5:8에서도 확인된다. 레위기 5:8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해서 양을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다룬다. 이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역』과 『새번역』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개역).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 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새번역).

『개역』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고 한다. 그렇지만 『새번역』은 새의 목을 “비틀지만, 목이 그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하라고 말한다. 『개역』과 『새번역』은 레위기 5:8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서로 다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원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베히크리브 옛-아세르 라חתאט 리쇼나) 우말락 옛-로쇼 밈물 오르포 벨로 야브딜 ולא יבדיל ערפו ומולק אתראשו ממוול ערפו ולא יבדיל ולא יבדיל (MT).

(...who shall offer first the one for the sin offering); he shall wring its head from its neck, but shall not sever it(RSV).

(...who will first offer the bird for the sin offering). He will break its neck without pulling off its head(TEV).

RSV는 “그 목을 그 몸에서 자르지만, 그것을 (즉, 그 목을) 두 동강내지 말라”로 옮긴다. TEV는 “그 목을 그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자르라”로 옮긴다. RSV와 TEV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레위기 5:8의 맨 끝에 나오는 구문 ‘벨로 야브딜’(ולא יבדיל)을 이해하는 방식은 같다. RSV나 TEV는 목적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원문과는 달리 ‘야브딜’(יבדיל, 절단하다) 동사의 목적어를 문맥에 따라 ‘로쇼’(ראשו, 그 목)로 읽었다.

사실, 레위기 5:8은 1:15와 함께 제물로 바친 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전하는 전문적인 행동 지침이다. 한 마디로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으면서도 그것을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구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이 거슬 제스장의게 가져오매 더가 속죄제에 쓸 거슬 몬져 드릴지니) 그 머리를 목에서 싣호되 그 몸은 두 조각에 내지말며(레 5:8, 구역)

『구역』의 레위기 5:8은 “그 머리를 그 목에서 “싣호되 그 몸은 두 조각에 내지” 말라고 번역한다. 그 머리를 몸에서 끊되, 그 몸은 두 조각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문(우말락 옛-로쇼 밈물 오르포 벨로 야브딜, ולא יבדיל ערפו ומולק אתראשו ממוול ערפו ולא יבדיל)과는 어긋난다. 원문은 그냥 “머리

를 그 목에서 끊지만, 두 동강내지 말라”이다. RSV, TEV, 『새번역』은 모두 문맥에 따라서 “두 동강내지 말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그 머리”로 읽었다. 하지만 『구역』의 번역자들에게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떻게 머리를 그 목에서 끊으면서도 두 동강내지 않을 수 있는가? 새를 제물로 드릴 때 그 목뼈를 부서트리면서도 그 목의 식도나 기도를 파손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아니면 새의 목을 비틀어 끊지만 그 목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소리인가? 이런 어려움을 『구역』은 그 머리를 그 목에서 “흔드되 그 몸은 두 조각에 내지”말라고 해결하였다. 원문의 구문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말에서 뜻이 통하는 번역이 되게 하고자 “절단하지 말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원문에는 없는 “그 몸”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였다. 그래서 “머리를 몸에서 비튼다”(개역, 새번역)보다 “머리를 몸에서 끊다”로,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새번역)보다 “그 몸을 두 조각 내지 말라”로 바꾸었다. 히브리어와 우리말이 부딪힐 때 구역은 히브리어를 살리기보다는 우리말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구역』의 우리말 살리기, 우리말 다듬기는 레위기 19:20에서도 드러난다.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레 19:20, 개역).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레 19:20, 개역개정).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읽기에 수월하지 않다. 무엇보다 『개역』은 본문이 다루는 사건의 주체인 종 신분의 여인을 가리켜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사람”이라고 차별하여 부른다. 『개역개정』은 이런 차별적인 말투를 순화시키면서 개역의 오역 부분을 바로 잡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이 그것이다. “동침하여 설정하다”는 말은 ‘이쉬카브 옛-잇샤 쉬크밧-쩌라’(שָׁכַב אִתָּהּ אִשָּׁה)의 번역이다. 『새번역』은 이렇게 전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레 19:20, 새번역).

『새번역』은 쉽다. 그러나 “남자”(이쉬, אִישׁ)라는 실명사를 두 번, “여자”(잇샤, אִשָּׁה)라는 실명사를 단 한 번 사용하는 원문과는 달리 『새번역』은 원문에서 인칭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모두 실명사로 바꿔 버렸다. 『구역』은 이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계집 종이 속량하거나 즈쥬히기 전에 늪의 빙패를 밟고 음행하면 간부와 더가 다 형벌을 받으려니와 죽임을 맞지아니할 거슨 종이 즈쥬함을 엇지못함이라(레 19:20, 구역).

『구역』에도 어려운 한자어, 성차별적인 용어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종을 가리켜 “계집 종”이라고 한다거나, 부정한 성관계를 “늪의 빙패를 밟고 음행하면”이라고 한다거나, 음행을 저지른 남자를 가리켜 “간부”라고 한다. 그렇지만 구역의 우리말은 훨씬 읽고, 듣고, 깨닫기에 수월하다. 이것을 위해서 원문 형식을 우리말에서 최소화시켰다. 그러

면서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린다. 그랬기에 남자가 사건의 주체가 되는 원문의 형식과는 달리 『구역』은 사건의 주체를 남자에서 음행을 저지른 여종으로 바꿔버렸다. 『구역』에서 우리 주목을 끄는 주인공은 아직 해방되지 못한 여종이다. 『구역』은 그 여인이 빙패를 받고, 즉 돈을 받고, 낯선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는 규정으로 본문 흐름을 바꿔놓았다.

어떻게 이런 과감한 시도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원문의 형식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말을 살리는 번역을 이루게 되었을까? 그것은 『구역』이 당시 한국인 민중이 읽고 깨닫는 어법으로 시도된 번역이었기 때문이다. 김창락이 추측한 대로 한국말을 모르는 선교사와 함께 번역위원으로 참여한 한국인들이 원어 성경은 물론이고 영어 문법에도 문외한이었기에 정확한 번역(원문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우리말에서 뜻이 통하는 번역(제대로 된 번역)을 시도했기 때문이다.¹⁶⁾ 『구역』의 우리말은 1900년대 초 당시 이 땅의 토박이 말이다. 비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말의 일환이었다. 우리말 식 한자 표기이었지, 한문 식 우리말 표기가 아니었다. 이 점은 『구역』을 개정한 『개역』(1938년)이 일본어 문어체 역 성서의 영향을 받아서, 『구역』의 한자 표기를 일본식 한자로 고쳤다는 지적에서 새삼 확인된다.¹⁷⁾

2.4. 때로는 원문의 내용을 풀어서 번역하고 있다

-
- 16)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44.
- 17) 민영진, “사무엘하 2장 8절의 번역,” 『신학과 교회-이근호 총장 회갑기념 논문집』 (대전: 도서출판 근화, 2000), 38. 민영진은 여기에서 1911년의 『구역』을 수정한 1938년의 『개역』은 개역(改譯)이 아니라 개악(改惡)이었다고 지적한다. 『구역』의 토박이말이 『개역』에서는 한자어로 바뀌었으며, 『구역』이 담고 있는 우리말식 한자어는 『개역』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938년은 일본의 한국 강제 점령이 한창 절정이던 시대였다. 그래서 일본어 문어체 역 성서가 우리말 『개역』에 조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성서 번역에서 소중한 것은 원문의 뜻을 수용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다. 원문이나 번역문이나 다 언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원천 언어나 수용 언어가 같은 계열의 말이 아닐 때 수용 언어는 원천 언어의 내용을 번역문에 전달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원문의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다. 구역은 바로 이 점에서 원문의 전달보다 독자의 이해를 앞세우는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그 단적인 경우가 “위임식 제사”라는 용어다. 레위기 8:28-29를 읽어보자.

모세가 더희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번제제물 위에 불살오니 이는 더희를 세워 제스장을 삼을 썬에 향내 나는 제스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그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압헤 요제로 흔드니 이는 제스장을 세울 썬에 드리는 슈 양의 고기 중에서 모세의게 돌닐 거신디 여호와께서 모세의게 명하신대로 흠이라(레 8:28-29, 구역).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레 8:28-29, 개역).

히브리어 원문은 다소 애매하다.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가령 “그것은 위임식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מִלֻּלְמִן חֶמֶת, לַרְיַח נִיחַח אֲשֶׁה הוּא לַיהוָה)로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은 위임식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사다. 주님께 드리는 화제다”(מִלֻּלְמִן חֶמֶת, לַרְיַח נִיחַח, אֲשֶׁה הוּא לַיהוָה)로 읽을 수도 있다. 이것을 『구역』은 위임식(מִלֻּלְמִן, חֶמֶת)이라고 하지 않고 “제스장을 삼을 썬에 향내 나는 제스”로 풀어 번역하

었다.

이런 예는 레위기 10:1에서도 드러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레 10:1, 개역개정).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울시 여호와 압해 거룩지못한 불을 드려 그 명함을 좇지아니하니(레 10:1, 구역).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불”(עֵשֶׂת צָרָה, אֵשׁ אֲחֵרָה)이다. 『개역』에서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지만 『구역』은 그것을 “여호와 압해 거룩지못한 불”이라고 번역하였다. 사실, 레위기 10:1의 해석에는 번역자의 주석이 동반된다. 이 “다른 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일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불, 즉 이방신을 섬기던 불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져온 불일 수도 있다. 『구역』은 이 말을 “여호와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불”이라고 명쾌하게 번역하였다.

이 같은 경우는 레위기 10:7의 “관유”에서도 드러난다.

여호와와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레 10:7, 개역).

또 회막 문에 나가지 말나 죽을가 두려워호노니 대개 여호와와 바르시는 기름이 너희 몸에 있다 하니 너희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더라(레 10:7, 구역).

주목할 것은 『개역』이 관유라고 옮겼던 말을 『구역』은 원래 “여호

와의 바르시는 기름”(שמן משהת יהוה, שמן משהת יהוה)으로 바르게 풀어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 표현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물론, 무조건 한자말 용어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제나 거제는 그대로 나타난다.

요제의 흔드는 가슴과 거제의 드는 우편 뒤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너와 네 자녀가 다 먹으라 이는 이스라엘 조손의 드린 화목제 중에서 너희 네 조손들이 맛을 분것이라(레 10:14).

왜 요제(테누파, תנופה)나 거제(테루마, תרומה)는 어려운 한자말을 그대로 활용하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보는 제물(요제)이나,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거제)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 이것은 어쩌면 “요제”(搖祭)의 “요”나 “거제”(擧祭)의 “거”가 그들에게 친숙한 한자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문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추측컨대 『구역』은 할 수만 있으면 쉬운 말, 쉬운 번역을 우선 시도하되, 혹 독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한문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했으리라. 『구역』의 쉬운 말을 『개역』이 오히려 어려운 말(한자)로 바꿔 놓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추측이 가능해진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레 19:28, 개역개정).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레 19:18, 새번역).

죽은자를 위하야 살을 버리지말며 몸에 조조하지말나(레 19:18, 구역).

어떤가? 문신(개역)이나 상처(새번역)라는 용어보다 “살을 버히지 말라”(살을 베지 말라, 구역)는 말이 훨씬 더 쉽지 않은가! 문신(개역, 새번역)의 경우 『구역』은 “몸에 즈즈흐지말나”고 가르치고 있다. 자자하다는 말은 한자어이다. 자자(字字)란 한 글자 한 글자란 뜻이다. 자자(自恣)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함이다. 자자(刺字)는 또 글자로 문신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동사로 써서 자자(藉藉)하다고 하면 소문이나 칭찬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어 떠들썩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우리말로 그냥 자자하다고만 하면 그것은 대번에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몸에다가 글자를 새긴다는 뜻도 되고, 몸을 자기 멋대로 한다는 뜻도 되며, 몸에다가 글자로 문신을 새긴다는 뜻도 된다. 『구역』의 레위기 19:18, “죽은자를 위햐 살을 버히지말며 몸에 즈즈흐지말나”는 말은 우리말이 히브리어와 만나면서 증폭되는 말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소리로 여러 가지 뜻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원문보다 더 깊은 뜻을 자아내고 있지 않은가!

『구역』이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는 번역에 치중하였다는 깨달음은 레위기 12장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 여인은 아직도 삼십삼 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레 12:4, 개역개정).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삼십삼 일동안,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레 12:4, 새번역).

『개역』의 산혈은 원문(드메 타하라, טהרה דמה)에 대한 대응어다. 『새번역』은 원문의 뜻을 우리말의 뜻에 살리고 있으나 너무 길게 풀어서 번역했다. 게다가 산혈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은 생략했다. 그냥 산모

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였다. 『구역』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

그 후에는 히산홀 짜에 흘닌 피를 정결케 하라고 그 녀인이 삼십 삼 일을 여전히 지내리니 정결케 하느 기한이 초기 전에는 거룩한 레물을 먹지지도 말며 성소에 드러가지도 말나(레 12:4, 구역).

『구역』은 『새번역』에 비해 훨씬 문장 길이가 짧다. 원문의 뜻을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구역』은 『새번역』보다 문장 길이에서 더 실용적(?)이다. 그러면서 산혈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히산홀 짜에 흘닌 피(해산 할 때 흘린 피)”라고 풀어서 전달하고 있다. 번역의 지평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다. 이것은 레위기 12:7b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역』이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개역개정)고 한 것을 『구역』은 원래 “이는 즈녀를 히산하느 녀인을 위하야 세운 규례라”로 옮겼었다. 아들딸을 생산했다는 말보다는 자녀를 해산했다는 말이 훨씬 더 우리말 어법에 잘 어울린다.

2.5.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을 번역에 살리고 있다

『구역』은 순수한 우리말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구역』의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원문과 함께 번역의 준(準) 대본이나 참고 대본으로 한문 성경을 활용했었을 것을 참조하면 한문 술어들이 『구역』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역』의 번역자들은 곳곳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처음 경우가 소제로 드리는 예물에서 확인된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예물이다(레 2:4-7; 7:9). 이 소제를 드리는 경우를 『구역』은 다음 세 가지로 풀이한다. 곧 구운 것과 부친 것과

지진 것을 드리라는 것이다.

만일 네가 화덕 속에 구운 거스로 소제의 제물을 드리거든...(2:4).

만일 네가 번털에 붓친 거스로 소제를 드리거든...(2:5).

네가 남비에 지진 거스로 소제를 드리거든...(2:7).

소제는 구운 것과 부친 것과 지진 것으로 드려야 한다! 『개역』에는 이런 리듬이 빠져 있다. 그냥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부친 것,” “남비의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레위기 7:9-10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남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개역개정),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솔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새번역)로 표현한다. 즉, 『구역』이 말하는 “남비에 지진 것”의 맛(1)을 잃어버렸다. 무릇 소제는 화덕에서는 굽고, 철판에서는 부치고, 남비에는 지지는 것이어야(새번역처럼 굽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는가!

『구역』의 우리말이 아름답다는 것은 화목 제물의 “등성마루 뼈, 미골, 엉치뼈”(레 3:9)에서도 드러난다.

그 임자가 화목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거시 잇느니 곳 기름이라 기름진 온전한 소리를 등성 마루 뼈 갖가히 버히고 넋장에 덤힌 기름과 넋장에 붓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콩팥에 잇는바 허리 스이의 기름과 밧 간과 콩팥 우에 잇는 썩흔을 취흔즉 제스장이 제단 우에 불살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의 식물이니라(레 3:9-11).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개역개정).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 낸 꼬리 전부와...(새번역).

『구역』의 등성마루는 순 토박이 우리말이다. 산등성마루의 준말이다. 산마루라고도 한다. 등성마루, 산마루, 산등성마루는 산의 등줄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킨다. 레위기 3:9는 양을 잡아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밝히고 있는 규정이다. 양의 등줄기 가운데 꼬리 부분은 불쑥 솟아 있다. 이 부분을 가리켜 등성마루라고 불렀다. 엉치뼈나 미골(尾骨)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척추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뼈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미골은 꼬무니뼈라고도 하고 꼬리뼈라고도 하며, 엉치뼈는 미골과 더불어 골반의 뒷벽을 이루는 뼈를 가리킨다. 수직으로 서서 걷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미골이나 엉치뼈에 비해 수평으로 걷는 짐승의 허리는 산등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 산등성 가운데 가장 뾰족 솟은 부분을 가리켜서 등성마루 뼈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재치 있는가!

레위기 13장도 이 점에서 재미있다. 피부에 생긴 ‘차라앗’(חַרְחָלִים, 나병)을 진찰할 때 “색점”(개역)이나 (살갓에 생긴) “얼룩”(새번역)에 주목하는 대신 “얼녁얼녁 흥 곳”(구역)에 주목하라고 말한다(레 13:2, 4, 19, 24 등). 피부에 얼룩얼룩한 곳이 생겼다면 피부 질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구역』에는 우리에게 낯선 용어와 표현도 많이 나온다.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레 19:29, 개역개정).

너는 네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며,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레 19:29, 새번역).

즈기의 썰노 기성을 문들여 욱되게 하지말나 두렵건대 그 싸에 힘창흔 일이 퍼짐으로 악행이 가득할가 넘려호노라(레 19:29, 구역).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개역)나 “창녀로 내 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새번역)보다는 “기성을 만들어 욕되게 하지 말나”(구역)고 주문하고 있다. 창녀를 기생으로 옮긴 것은 그 당시의 풍속을 반영한다. 주목할 것은 “음행”을 “형창하는 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행창(行娼)하는 일이란 요즈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다. 이런 것은 레위기 16:31에도 나온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레 16:31, 개역개정).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레 16:31, 새번역).

이 날은 너희가 거룩히 쉬는 안식일노 직히 스스로 직계홀지니 이는 영원히 규례니라(레 16:31, 구역).

『구역』은 우리에게 안식일에는 “스스로 직계홀지니”라고 타이른다. “직계하다”(재계하다)는 말은 재계(齋戒)에서 왔다. 엄격하게(齋) 경계한다(戒)는 뜻이다. 즉,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한다는 말이다. 흔히 목욕재계라고 하지 않는가. 『구역』의 재계하라는 말은, 요즈음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 말이지만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개역)나 스스로 고행하라(새번역)는 주문보다 훨씬 더 가슴을 파고든다. 무릇 안식일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구역』에는 한자어가 많이 나온다. 특히 호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령 레위기 18:6의 “살붙이”(개역개정, 새번역)를 『구역』은 “골육지친”이라고 부른다. 레위기 18:9와 20:17의 “네 아버지의 딸이 나 네 어머니의 딸”(개역개정, 새번역)을 “동부 이모”(同父異母), “동모 이부”(同母異父)라고 표현한다.¹⁸⁾ 그럼에도 『구역』은 우리말로 수려하

게 읽힌다. 이 점이 소중하다.

3. 맺음말

1911년의 『구역』은 우리말로 공인된 성경전서의 뿌리다. 성경 본문의 골격이 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말로 확정하였다. 레위기의 경우 『구역』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레위기의 5대 제물로 고정시켰다. 『구역』은 원문의 형식과 특징을 우리말로 살려내려는 문자적 번역에 우선 치중하였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겨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원어의 세계를 가능한 한 우리말 속에 조심스럽게 살리고자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역』이 히브리어 원문을 전달하는 일에만 매달렸

-
- 18) 『구역』은 호칭에서 『개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인칭대명사 “그”는 “그 임자 가”(1: 4, 5, 6, 11, 12, 13 등)로, 남자는 사나희(6:18, 29; 7:6 등)로 표현된다. 안수가 아니라 안찰(1:4; 3: 2, 8; 3:2, 8 등), 속옷(개역)은 적삼(8:7, 구역)이나 저고리(8:13)로, 컷부리(개역)가 귀 박희(구역)로(8:23, 24), 삼촌을 아즈비(10:4)로, 회중(10:17)을 회무리로, 피부(13:2)를 살 가죽(구역)으로 옮기고 있다. 18:8의 네 아버지의 아내(개역개정),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새번역)를 네 계모(구역)로 옮기다가 20:11에서는 “아버의 후실”(구역)로 번역해 놓았다. 이런 식의 차이는 참으로 많다. 18:10, “네 계모의 딸,”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개역개정),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네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새번역). 18:14, “네 숙모”(개역, 새번역), “네 빅모와 숙모”(구역). 18:16과 20:21, “네 형제의 아내”(개역), “네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계수”(새번역), “형수와 계수”(구역). 25:49,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개역개정), “삼촌이나 사촌”(새번역), 빅숙이나 빅숙의 아들(구역). 13:42의 대머리(개역, 새번역)를 “피인 머리”(구역)로, 15:1 유출병(개역)을 “림질”(구역)로 옮긴다(비교, 22:4). 12:2; 15:25에서는 여인의 유출을 “경도”(구역)로, 15:16에서는 설정(개역)을 몽설(구역)로, 15:22-23에서는 남자의 유출(개역)을 “림질 있는자와 정수를 흘려 부정하게 된 자”로 옮긴다. 18:24의 “문란한 일”(개역개정), “문란하게 하는 행위”(새번역)는 “어지러운 일”(구역)로, 26:7에의 “원수”(개역, 새번역)를 “딤택”으로 옮긴다.

던 것 같지는 않다. 히브리어 문장을 제대로 옮기려고 하기보다는 히브리어의 뜻을 우리말로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히브리어 구문에서 과감하게 이탈하기도 했으며,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풀어 썼고, 토착어를 과감하게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구역』의 언어가 우리말 한글이라는 점이다. 『구역』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우리말 신, 구약 성경 전서이었다. 조선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자들이 이른바 언문(諺文, 상말, 속된 말)으로 천대하던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획기적인 우리말 경전이다. 결코 경전 언어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그 시대 민중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입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였다. 『구역』의 등장과 함께 우리말 한글이 공용어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점은 『구역』을 개정한 『개역』이 일체의 한국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던 1938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크게 대조된다. 『개역』은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식 한자어 사용에 맞춰 『구역』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역』에서 『개역』으로, 『개역』에서 다시 『개역개정』으로 이어가는 한글 성경이 그보다 훨씬 나중에 이루어진 『새번역』보다 강한 생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역』이 번역되던 당시에는 사람들의 입말을 글말로 옮긴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구역』의 문체가 경전 언어에 적합한 표현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제는 아예 강단용 성경의 표준으로 간주되기까지 이르렀다. 번역 이론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대체로 30년(한 세대)을 주기로 언어가 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성서 번역도 30년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성서는 옛 말로 표현되어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911년 당시 『구역』은 쉬운 번역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구어체로 옮겨놓은 번역이었다. 『구역』이 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근대 문학의 창시자인 이광수가 털어놓았던 고백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朝鮮人에게 준 것은 실로 耶穌敎會외다. 귀중한 新舊約과 讚頌歌가 한글로 翻譯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權威가 생기고 또 普及된 것이요. 昔日에 中國經傳의 諺解가 있었으나 그것은 普及도 아니 되었을 뿐더러 翻譯이라 하지 못하리만큼 拙劣하였소. 소위 吐를 달았을 뿐이었소. 그러나 聖經의 翻譯은 毋論 아직 不完全하지마는 純朝鮮말이라 할 수 있소. 아마 朝鮮글과 朝鮮말이 眞正한 意味로 高尚한 思想을 담는 그릇이 됨은 聖經의 翻譯이 最初일 것이요, 만일 後日에 朝鮮文學이 건설된다 하면 그 文學史의 第一項에는 新舊約의 翻譯이 記錄될 것이외다.¹⁹⁾

그렇다. 1911년의 『성경전서』는 이 땅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하늘의 뜻을 소담스럽게 담아 놓은 최초의 그릇이었다.

<주요어>

신, 구약 성경 전서, 성경전서(1911년), 레위기, 번역 특징, 입말, 글말, 형식 일치, 의미의 동등성, 풀어 쓰기, 토속어, 한자어, 한글

<Key Words>

Bible,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Leviticus, translation techniques,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formal correspondence, dynamic equivalence, paraphrasing, native language, Chinese character, Hangeul(the Korean alphabet)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수정일 2010년 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8월 28일

19) 이광수, “耶穌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9 (1917);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109에서 증인.

참고문헌

- 『구약전서』, 조선/경성: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38.
-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1 (2010), 39-74.
- 김혜숙, 『국역 성서연구: 번역사 및 국어학적인 고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 민영진, “사무엘하 2장 8절의 번역,” 『신학과 교회- 이군호 총장 회갑기념 논문집』, 대전: 도서출판 근화, 2000, 28-40.
-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1 (2010), 5-37.
- 신학월보 편, 「신학월보」 영인본 5,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8.
-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 & Culture』 4:1 (2010), 127-157.
- 송길섭, “〈그리스도인회보〉 해제,” 『조선그리스도회보』 1 (1897. 2. 2.-1898. 12. 28.),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6, v-vi.
-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 & Culture』 4:1 (2010), 75-125.
- 이덕주, “〈신학월보〉의 발행 역사와 사료적 가치,” 『신학월보』 영인본 5,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8, 6-15.
- 조선그리스도회보 편, 「조선그리스도회보」 영인본 1 (1897. 2. 2.-1898. 12. 28.),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6.

<초록>

『성경전서』(1911년)에 반영된 번역의 특징들

-레위기를 중심으로-

왕대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최초의 우리말 성경전서인 『성경전서』(1911년)는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던 입말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성경전서』는 이 땅에서 최초로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완간한 성경전서다. 『성경전서』는 우리말 성경의 뿌리다. 성서의 전문 용어를 확정하였고, 번역 원칙의 전통을 마련하였다. 원문의 특징을 우리말로 살리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원문의 구조와 우리말 어법이 대립하면, 원문을 살리기보다는 우리말을 살리는 쪽에 다가서 있다. 그것을 위해서 원문의 형식을 약간씩 이탈하기도 하고, 원문의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 중에 『성경전서』는 그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의 우리 토속어를 과감하게 번역에 반영하였다. 한자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말식으로 썼고, 그 한자어마저도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우리말로 그냥 써놓았다. 『성경전서』가 번역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던 때이다. 하지만 1911년에 출간된 『성경전서』의 한자어는 아직은 일본식 한자어에 그 자리를 내 주지 않았다. 이 점은 1938년에 개정된 『개역』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성경 번역에 차용했다는 사실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Abstract>

The Translation Techniques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An Evalu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ook of Leviticus

Prof. Tai-il Wa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show the translation techniques used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Five principles have been discussed in reading the book of Leviticus for being concerned with evaluating the translation in Korean. *The Complete OT in Korean* has the tendency to reveal the literary characters of the Hebrew Bible in Korean. But it is not so much the translated Bible as the Korean Bible, since it takes the Korean way of speaking when in the struggle with reconstructing the Hebrew structure in translation. It does not avoid to paraphrasing the source language on the frame of formal correspondence. It shows the specially targeted reader group that is, a common people of Korea speaking Hangul in both oral and written forms that are peculiar to ordinary communications in daily life. Chinese characters are widely used by means of Korean words yet they are not attested in Chinese ideographs, but spelled in Korea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is to be judged as the first meaningful translation that has attract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readers.